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09. 12.

I. 조사개요

미래/를/위/한/컨/설/팅 &
조사분석의 최강의 동반자



1. 조사배경 및 목적

-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활동은 신체적·정신적 재활의 도모 및 문화생활의 향유, 자아개발의 경험, 그리고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등 장애인 복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를 통해 과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및 의식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고객지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임.
- 본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책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음.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조 사 대 상	전국의 등록 장애인
표 본 크 기	1,500명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 ±2.5%
표본추출방법	시·도지부/장애유형/성을 고려한 비례할당추출법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개별면접, 자기기입식 등 혼합조사 병행
조 사 기 간	2009년 11월 9일 - 2009년 12월 4일
조 사 기 관	(주)폴리시앤리서치

3. 조사내용

<p>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및 비실행비율 ☞ 운동목적 ☞ 운동횟수 ☞ 운동시간 ☞ 운동장소 ☞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p>2.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에 대한 의지 ☞ 희망하는 운동종목 ☞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
<p>3.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생활체육관련 정보 신뢰성 ☞ 장애인 운동효과 ☞ 전문지도자의 필요성 ☞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에 대한 인식 ☞ 선호하는 장애인 할인혜택 ☞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 ☞ 장애인 전문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프로그램 필요성
<p>4.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결성 및 조직확대의 필요성 ☞ 자치단체의 관심에 대한 인식 ☞ 기업의 후원에 대한 인식 ☞ 기타 의견

4. 자료처리 및 분석

1)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 CODING/PUNCHING ⇨ DATA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V.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2) 분석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성/연령/장애유형/직업/월 평균가구소득수준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5. 응답자 특성

전체		사례수(명)	구성비(%)
		1,500	100.0
성	남성	1,038	69.2
	여성	462	30.8
연령	10대	58	3.9
	20대	214	14.3
	30대	339	22.6
	40대	396	26.4
	50대	279	18.6
	60대이상	214	14.3
거주지역	서울	261	17.4
	부산	77	5.1
	인천	70	4.7
	대구	66	4.4
	광주	41	2.7
	대전	28	1.9
	울산	24	1.6
	경기	317	21.1
	강원	68	4.5
	충남	80	5.3
	충북	48	3.2
	전남	118	7.9
	전북	74	4.9
	경남	86	5.7
	경북	112	7.5
제주	30	2.0	
장애유형	지체장애	799	53.3
	뇌병변장애	160	10.7
	시각장애	150	10.0
	청각장애	139	9.3
	지적장애	172	11.5
	기타	80	5.3
직업	경영관리	21	1.4
	사무행정	133	8.9
	자영/서비스	127	8.5
	건설노동/생산	67	4.5
	농림어업	17	1.1
	학생	92	6.1
	주부	167	11.1
	무직	771	51.4
	기타	103	6.9
	무응답	2	0.1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736	49.1
	100- 200만원	383	25.5
	200- 300만원	154	10.3
	300- 400만원	64	4.3
	400- 500만원	20	1.3
	500만원이상	22	1.5
	모름	20	1.3
	무응답	101	6.7
본인과 관계	본인	1,154	76.9
	가족	290	19.3
	기타	56	3.7

Ⅱ. 조사결과

미래/를/위/한/컨/설/팅 &
조사분석의 최강의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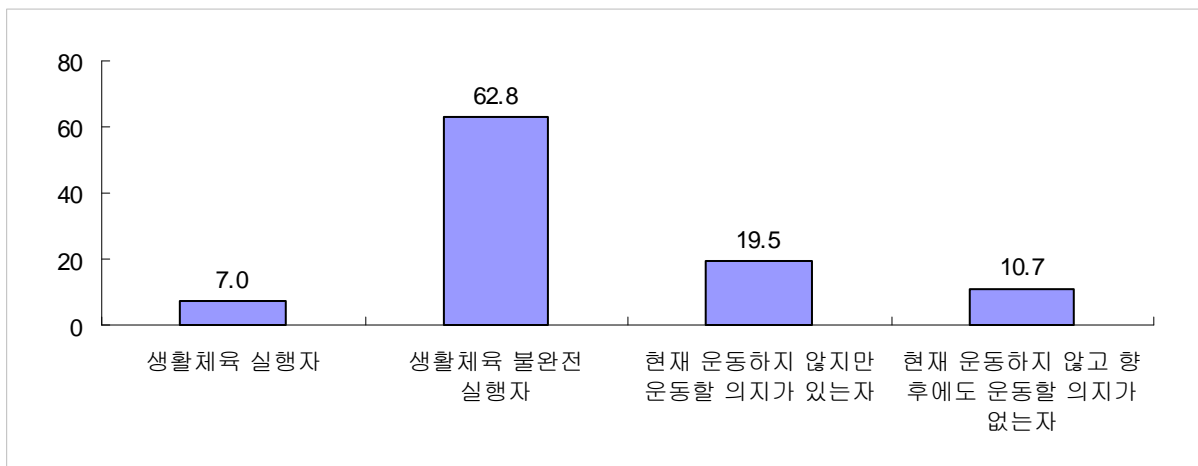
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실태

1)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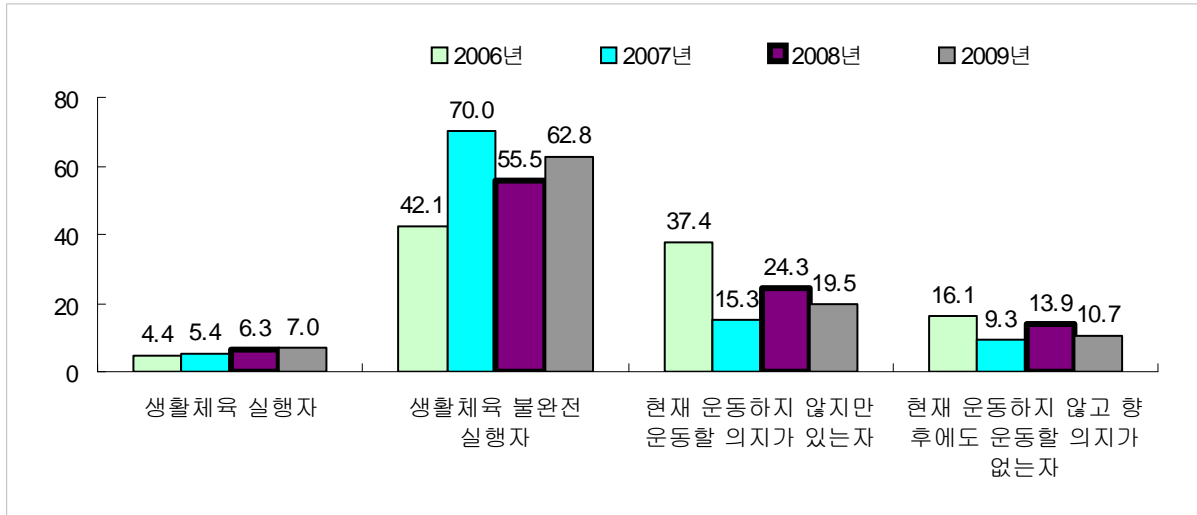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정의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란 운동을 하는 장애인 중 ‘1주일에 2-3회이상,’ ‘1회 당 30분 이상,’ 운동목적인 ‘건강증진,’ ‘여가활용,’ ‘기타 목적인 자’로서 집안이 아닌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대상자를 의미함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를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로 분류하였음.

- 본 조사에서는 ‘장애인 운동’의 개념을 “건강을 위한 모든 신체활동”으로 정의 하였음.
- “최근 1년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69.8%중 ‘생활체육 실행자’는 7.0%에 해당되며, 62.8%의 응답자는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30.2%의 “현재 운동을 하지 않지만 운동할 의지가 있는 자”가 19.5%였으며, 10.7%는 “현재 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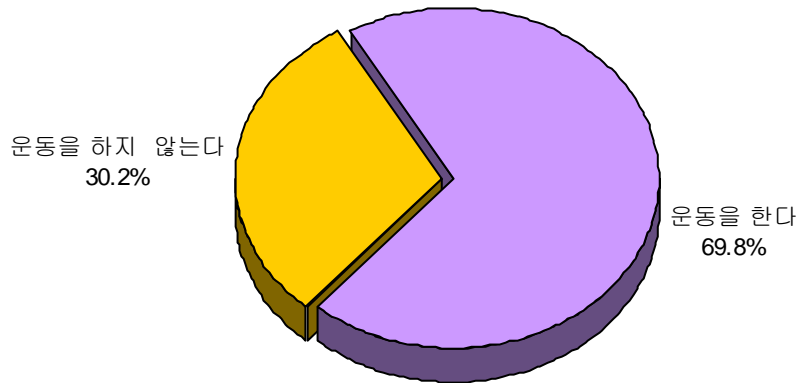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생활체육 실행자 비율이 증가하고(06년: 4.4%→ 07년: 5.4%→ 08년: 6.3%→ 09년: 7.0%) 있는 가운데,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는 55.5%에서 62.8%로 7.3%,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할 의지자는 24.3%에서 19.5%로 4.8%, 현재 운동하지 않고 향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자는 13.9%에서 10.7%로 3.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선생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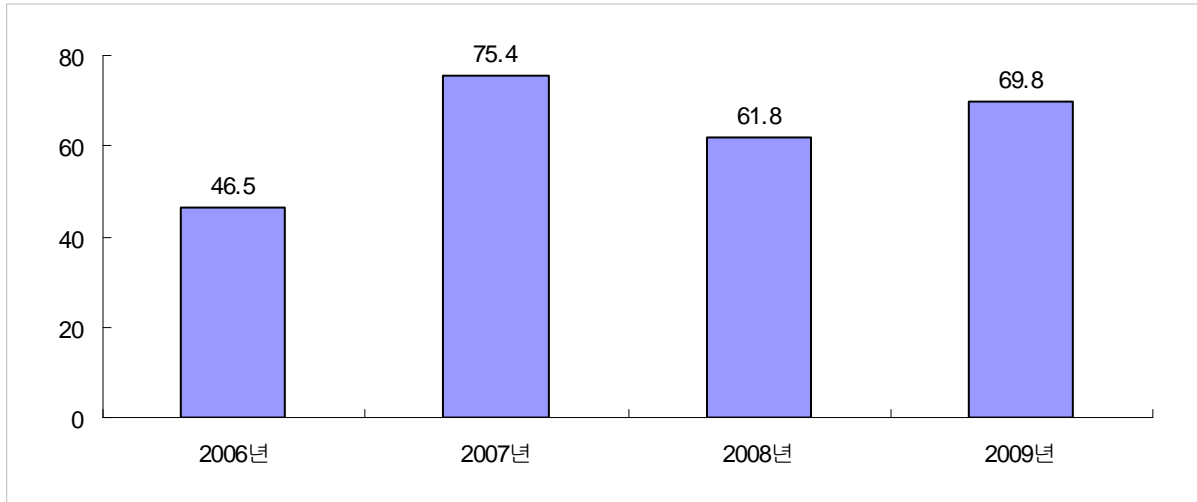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최근 1년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현재 운동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으며, 30.2%는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최근 1년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4.0%), 거주지역별로 제주(86.7%), 충남(82.5%), 전남(78.8%), 서울(78.5%), 광주(78.0%), 경남(77.9%), 충북(77.1%),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85.5%), 청각장애(80.6%), 직업별로 자영/서비스(75.6%), 월평균가구소득수준별로 100-200만원(79.4%), 200-300만원(7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거주지역별로 부산(42.9%), 경기(41.0%), 대구(40.9%), 장애유형별로 뇌병변장애(40.0%), 월평균소득수준별로 300-400만원(4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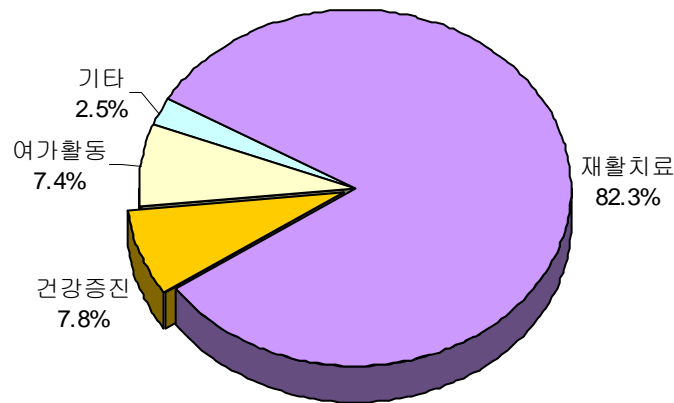
1-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생활체육 대상자의 61.8%에서 69.8%로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운동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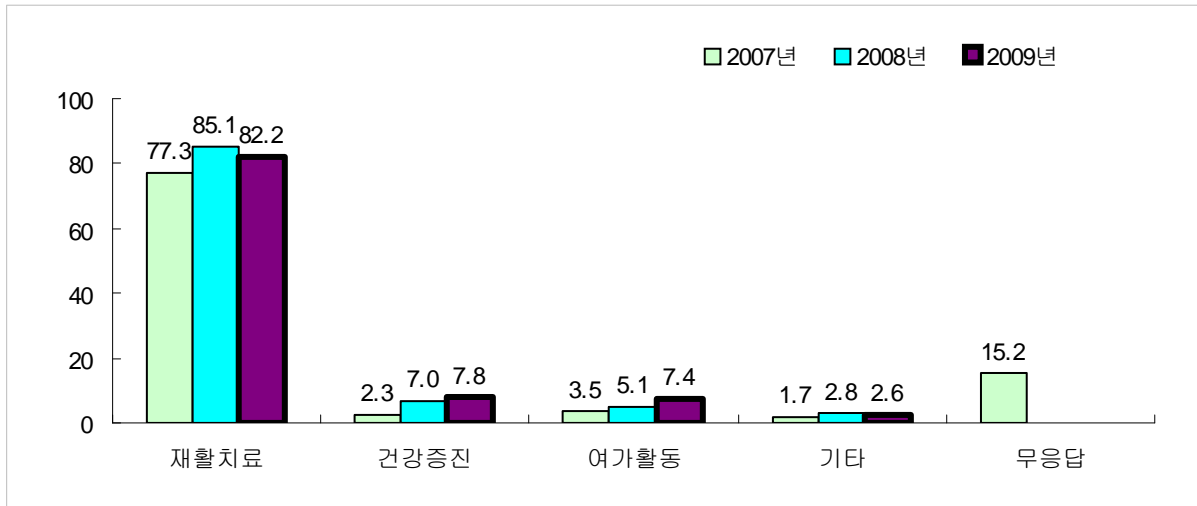
문) 선생님께서 현재 하고 계시는 운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Base: 운동 실행자, N=1,047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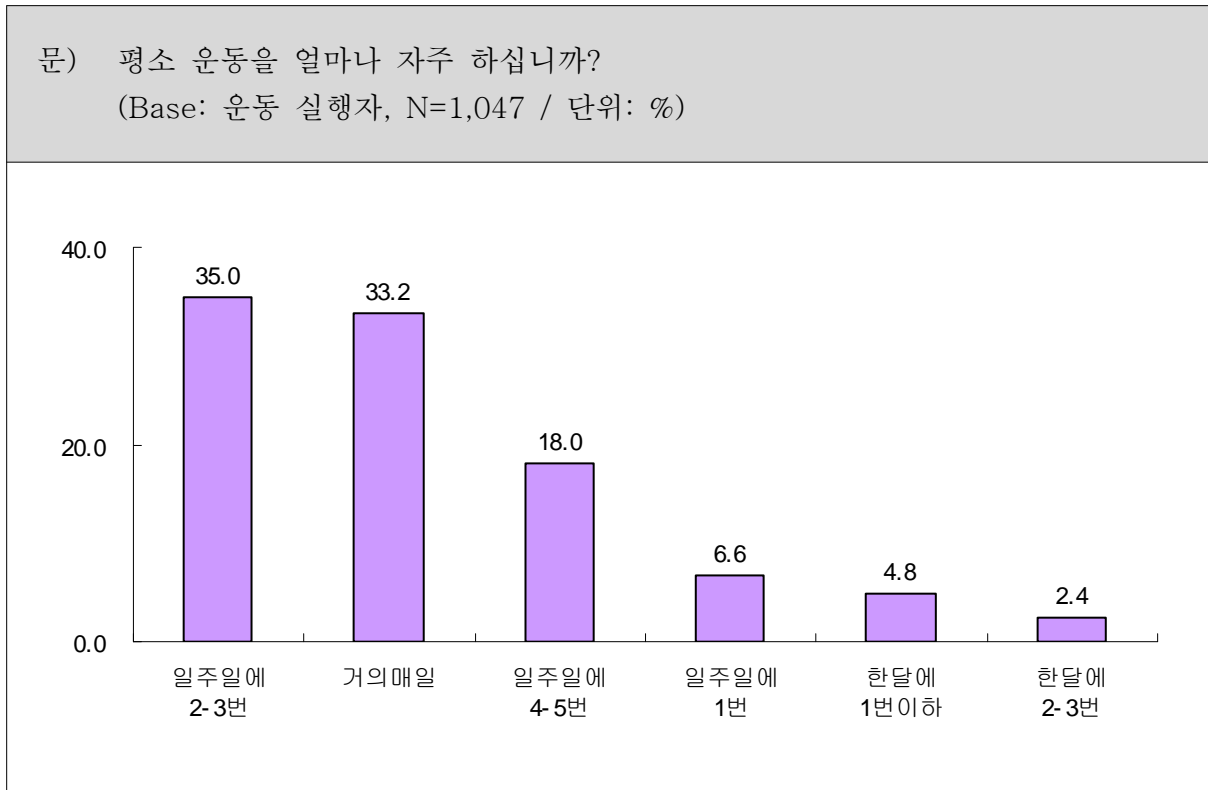
- 현재하고 있는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재활치료가 82.2%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다음은 건강증진(7.8%), 여가활동(7.4%),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연령별로 10대(92.3%) 및 50대(87.5%), 거주지역별로 대구(87.2%), 서울(86.8%), 경남(86.6%), 경북(86.1%),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88.4%), 뇌병변장애(87.5%), 직업별로 학생(89.4%), 자영/서비스 및 건설노동/생산(각 87.5%), 관계별로 가족(6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재활치료는 85.1%→ 82.2%로 2.9% 하락, 건강증진은 7.0%→ 7.8%로 0.8% 상승, 여가활동은 5.1%→ 7.4%로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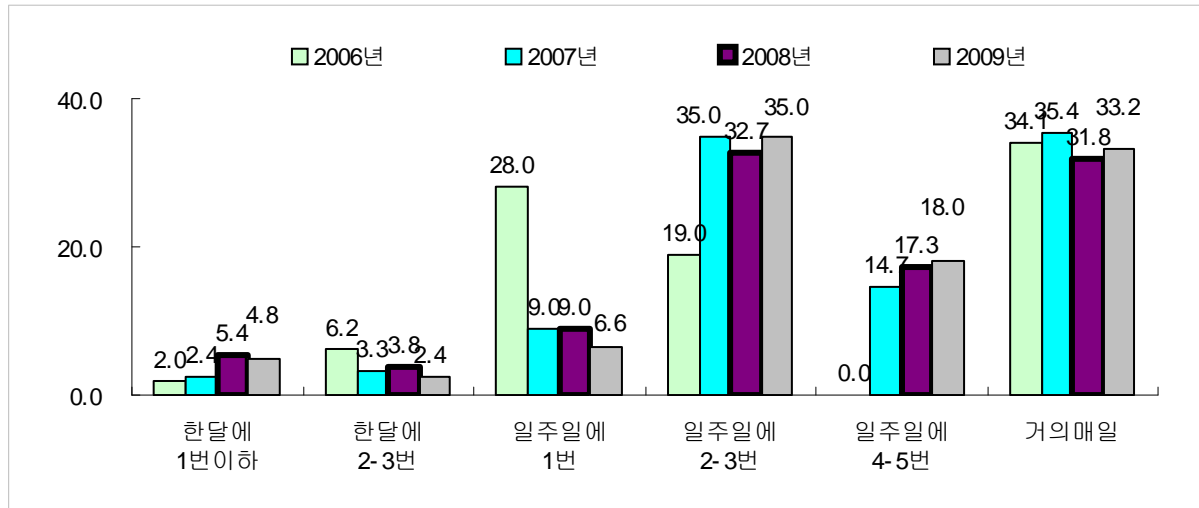
3) 운동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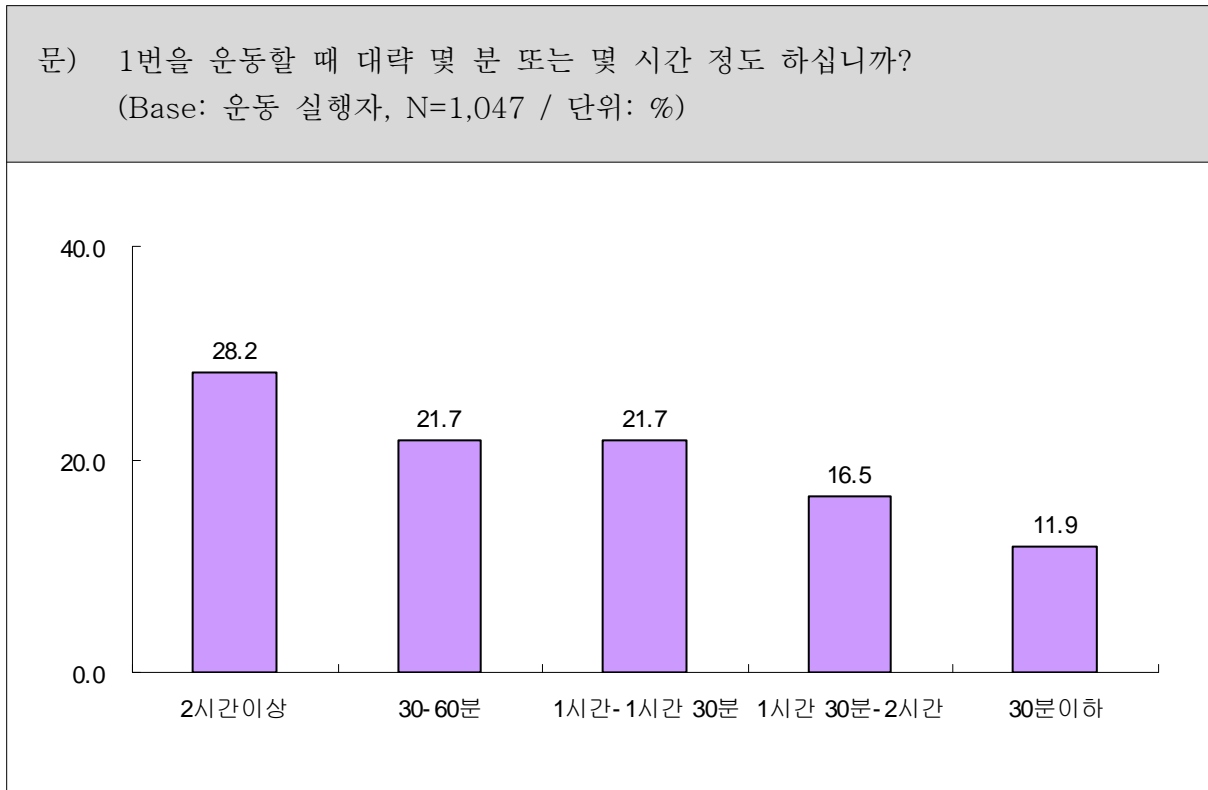
- 평소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주일에 2-3번이 35.0%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다음은 거의매일(33.2%), 일주일에 4-5번(18.0%), 일주일에 1번(6.6%), 한달에 1번이하(4.8%), 한달에 2-3번(2.4%) 순으로 나타났다.
- 일주일에 2-3번 운동한다는 응답은 거주지역별로 경북(45.6%), 강원(43.2%), 전북(43.1%), 광주(40.6%),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40.8%), 직업별로 사무행정(40.0%), 건설노동/생산(3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일주일에 2-3번이 32.7%→ 35.0%로 2.3% 상승, 거의매일이 31.8%→ 33.2%로 1.4% 상승, 일주일에 4-5번이 17.3% → 18.0%로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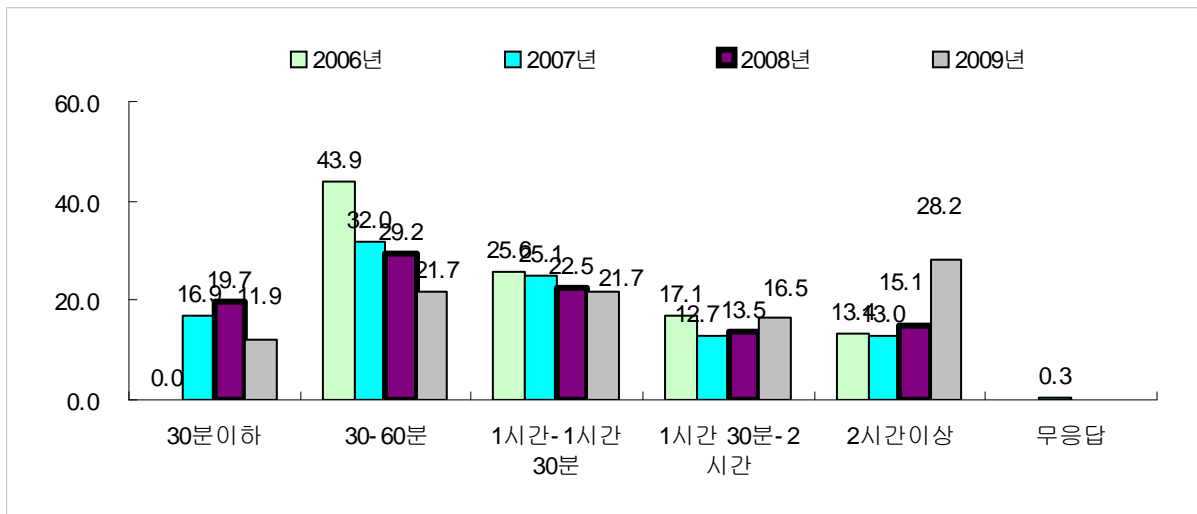
4) 운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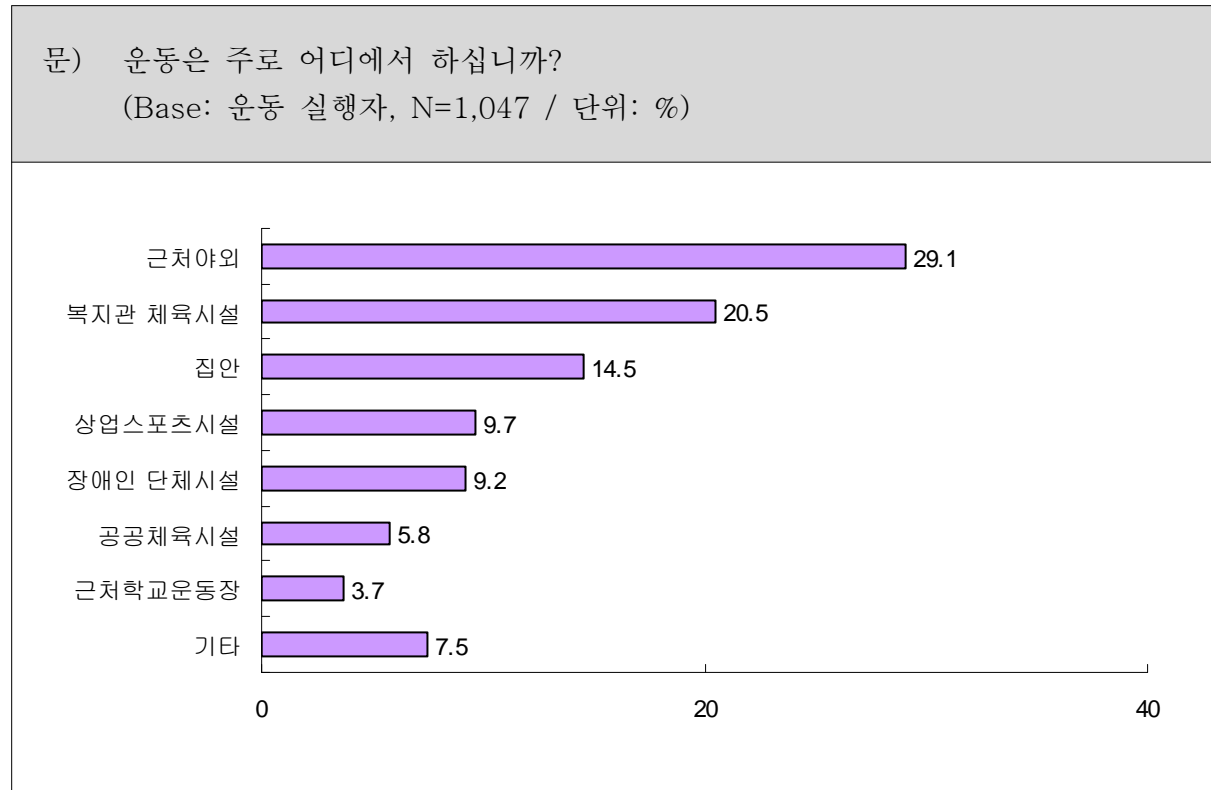
- 1번 운동을 할 때 대략 몇 분 또는 몇 시간 정도 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2시간이상이 2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60분 및 1시간-1시간 30분(각 21.7%), 1시간 30분-2시간(16.5%), 30분이하(11.9%) 순으로 나타났다.
- 1번 운동을 할 때 2시간이상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33.1%), 거주지역별로 서울(39.5%), 전북(35.3%), 충남(34.8%),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40.5%), 시각장애(35.7%), 직업별로 자영/서비스(39.6%), 월평균소득수준별로 300-400만원(3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시간이상은 15.1%→ 28.2%로 13.1% 급상승, 1시간 30분-2시간은 13.5%→ 16.5%로 3.0%, 상승, 30-60분은 29.2%→ 21.7%로 7.5% 하락, 30분이하는 19.7%→ 11.9%로 7.8% 하락, 1시간-1시간 30분은 22.5%→ 21.7%로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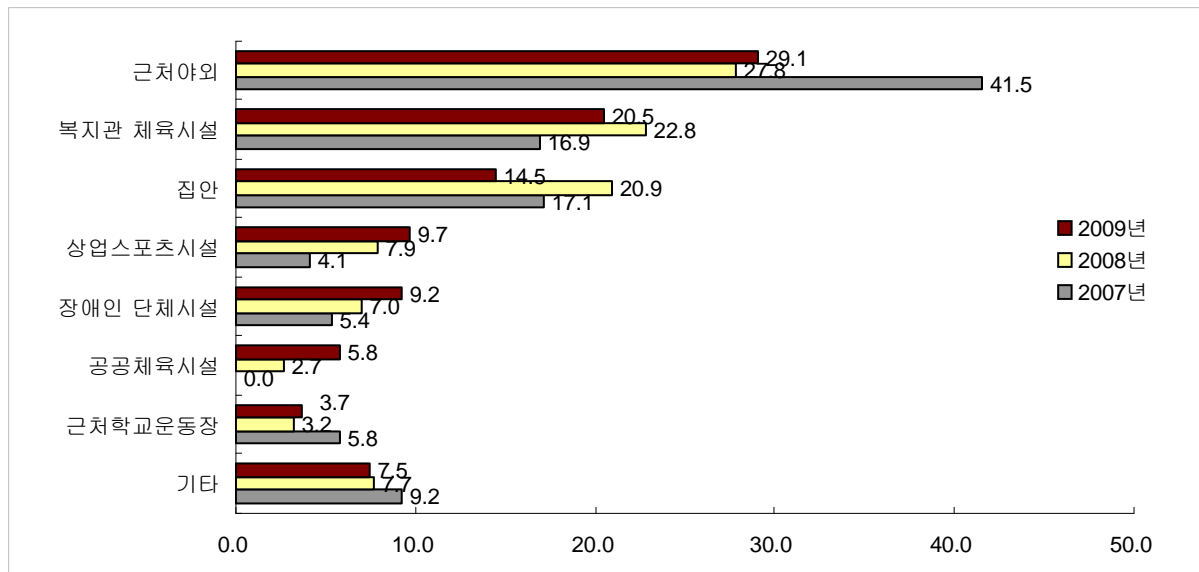
5) 운동장소



- 운동을 주로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근처야외 등산로나 공원이 29.1%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다음은 복지관 체육시설(20.5%), 집안(14.5%), 상업스포츠시설(9.7%), 장애인 단체시설(9.2%), 공공체육시설(5.8%), 근처학교 운동장(3.7%), 기타(7.5%) 등으로 나타났다.
- 근처야외 등산로나 공원에서 운동을 주로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이상 (33.8%), 거주지역별로 전북(51.0%), 경남(37.3%), 충남(36.4%),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52.4%), 시각장애(40.8%), 직업별로 자영/서비스(36.5%), 주부(33.6%), 월평균가구소득수준별로 200-300만원(38.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복지관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거주지역별로 서울(36.1%), 장애유형별로 뇌병변장애(4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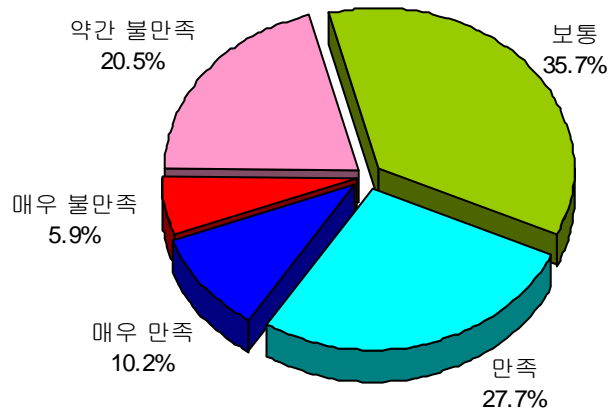
5-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처야외 등산로나 공원에서 주로 운동을 한다는 27.8%→ 29.1%로 1.3% 상승, 상업스포츠시설은 7.9%→ 9.7%로 1.8% 상승, 장애인단체시설은 7.0%→ 9.2%로 2.2% 상승, 집안은 20.9%→ 14.5%로 6.4% 하락, 복지관체육시설은 22.8%→ 20.5%로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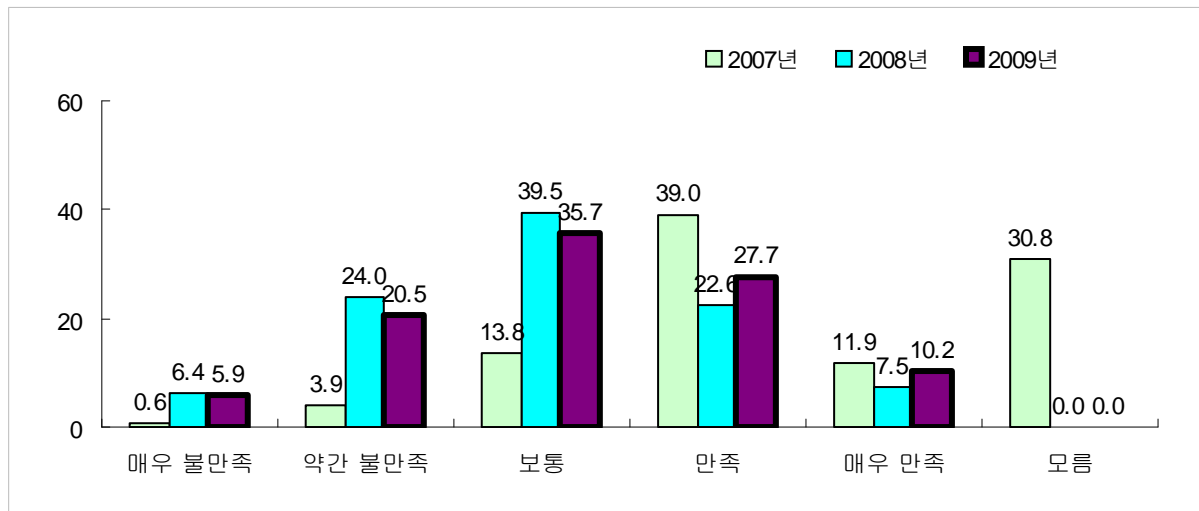
문)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Base: 운동 실행자, N=1,047 / 단위: %)



-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37.9%(만족: 27.7%+ 매우 만족: 10.2%)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26.4%(매우 불만족: 5.9%+ 불만족: 20.5%)이며, 보통은 35.7%로 나타났다.
- 체육시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2.7%) 및 60대이상(50.4%), 거주지역별로 경북(46.8%), 서울(45.9%), 강원(45.5%),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47.8%), 시각장애(4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으로 체육시설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34.8%), 거주지역별로 인천(44.4%), 경남(40.3%), 전북(39.2%),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59.2%), 청각장애(33.9%), 직업별로 학생(39.4%), 관계별로 가족(3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1) 추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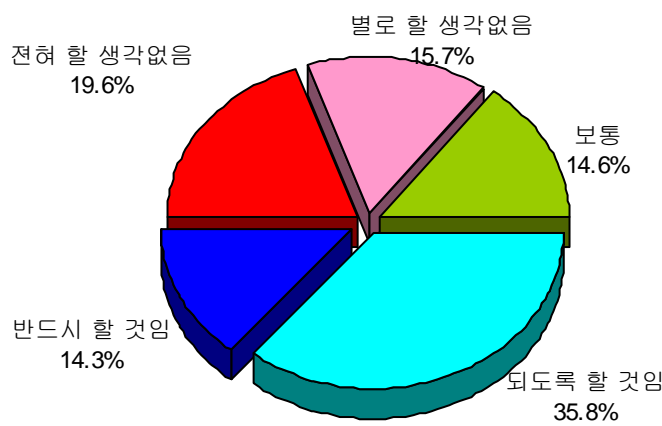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30.1%(만족: 22.6%+ 매우 만족: 7.5%)→ 37.9%(만족: 27.7%+ 매우 만족: 10.2%)로 7.8% 상승한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30.4%(매우 불만: 6.4%+ 약간 불만: 24.0%)→ 26.4%(매우 불만: 5.9%+ 약간 불만: 20.5%)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1) 운동에 대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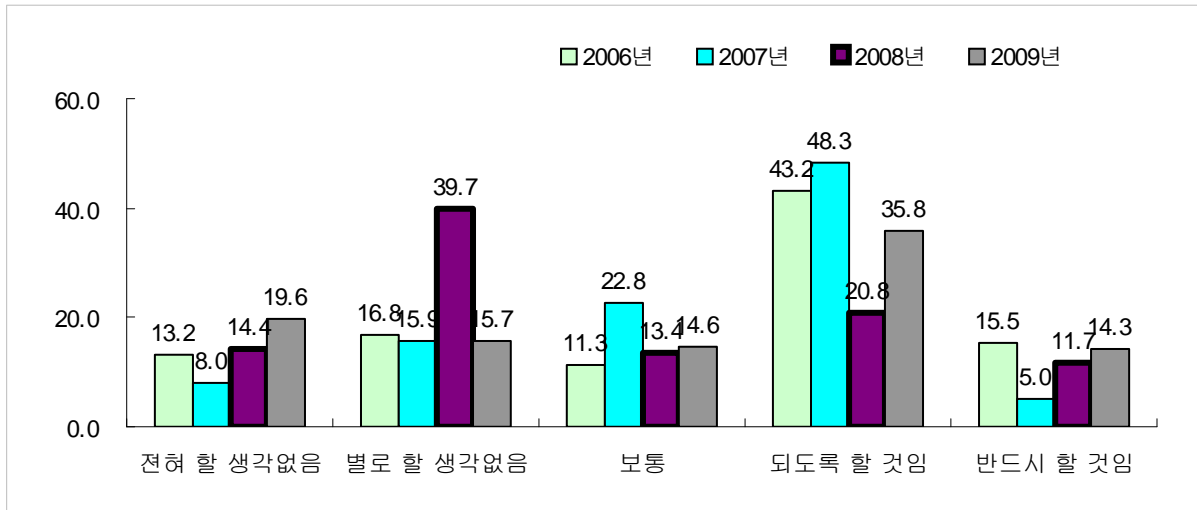
문)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정도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453 / 단위: %)



-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정도 해볼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과반수인 50.0%가 운동할 의향이 있는(되도록 할 것: 35.8%+ 반드시 할 것: 14.3%) 반면에 운동할 의향이 없다는 35.3%(전혀 할 생각없음: 19.6%+ 별로 할 생각없음: 15.7%)이며, 보통은 14.6%로 나타났다.
- 운동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55.7%) 및 40대(54.4%), 장애유형 별로 시각장애(61.5%), 직업별로 자영/서비스(67.7%), 사무행정(64.6%), 월평균 소득수준별로 200-300만원(6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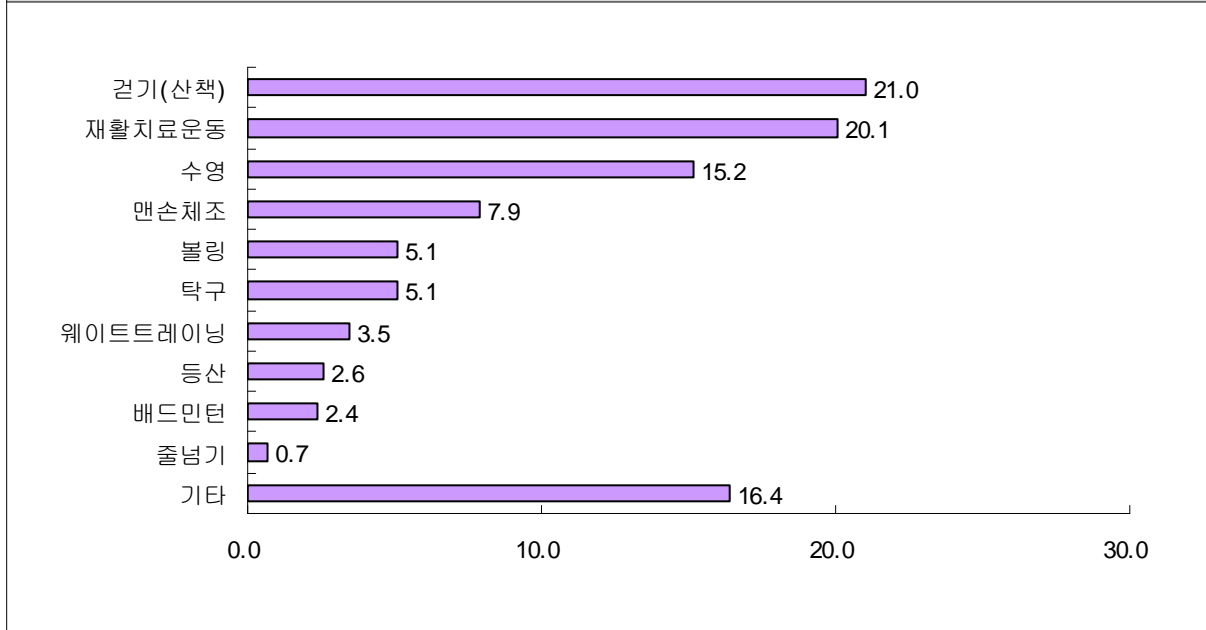
1-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운동할 의향은 54.1%(되도록 할 것: 39.7%+ 반드시 할 것: 14.4%)→ 50.1%(되도록 할 것: 35.8%+ 반드시 할 것: 14.3%)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희망하는 운동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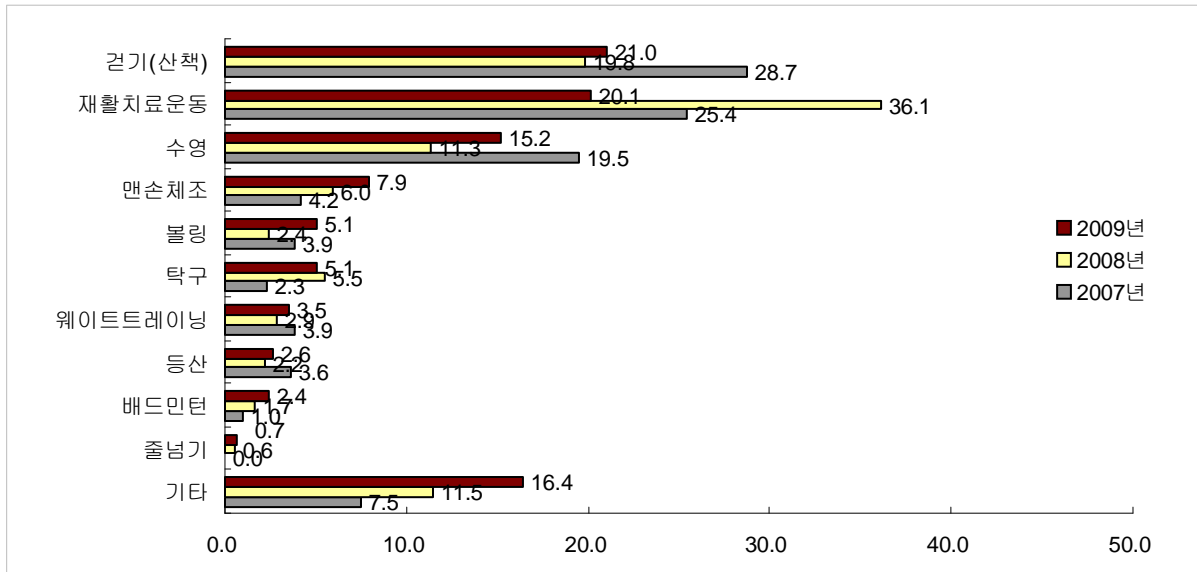
문) 만약 운동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종목은 무엇입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453 / 단위: %)



- 만약 운동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걷기(21.0%) 및 재활치료 관련 운동(20.1%)을 꼽고 있으며, 다음은 수영(15.2%), 맨손체조(7.9%), 볼링 및 탁구(각 5.1%), 웨이트 트레이닝(3.5%), 등산(2.6%), 배드민턴(2.4%), 줄넘기(0.7%), 기타(16.4%) 등으로 나타났다.
- 가장 하고 싶은 종목으로 걷기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고연령일수록(20대: 5.1% → 30대: 13.6% → 40대: 16.8% → 50대: 28.7% → 60대이상: 45.3%), 거주지역별로 부산(30.3%),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48.1%), 뇌병변장애(32.8%), 직업별로 학생(2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으로 재활치료 관련 운동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10대(31.6%),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28.2%), 월평균소득수준별로 100만원미만(26.6%), 관계별로 가족(2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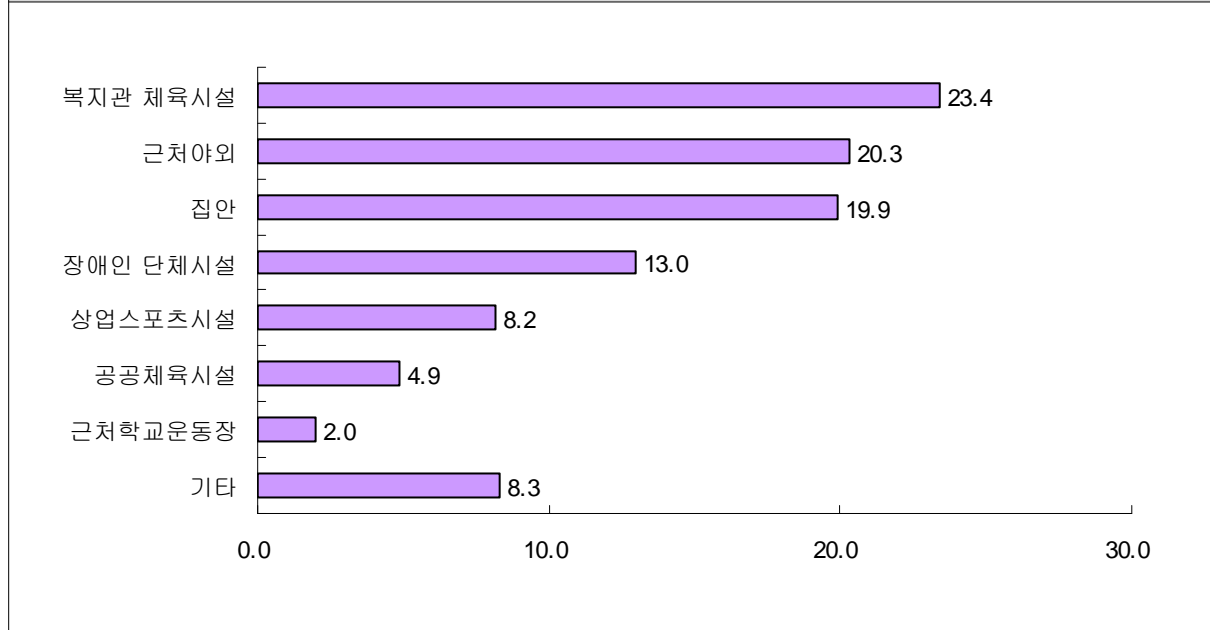
2-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재활치료 관련 운동은 36.1%→20.1%로 16.0% 급감소한 반면에 걷기는 19.8%→21.0%로 1.2% 상승, 수영은 11.3%→15.2%로 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

문) 앞으로 만약 운동을 하게 된다면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은 어디입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453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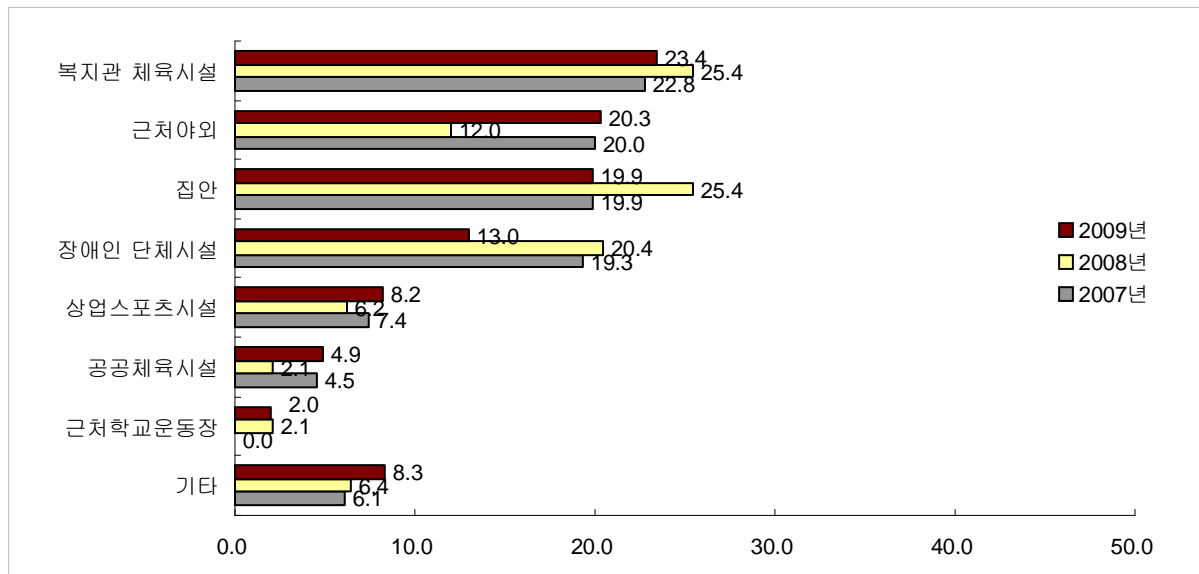


● 만약 운동을 하게 된다면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복지관 체육시설(23.4%)을 꼽고 있으며, 다음은 근처야외(20.3%), 집안(19.9%), 장애인 단체시설(13.0%), 상업스포츠시설(8.2%), 공공체육시설(4.9%), 근처학교운동장(2.0%), 기타(8.3%) 등으로 나타났다.

○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은 복지관 체육시설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28.0%), 거주지역별로 서울(2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로 근처야외는 12.0%→ 20.3%로 10.3% 급상승, 복지관 체육시설은 25.4%→ 23.4%로 2.0% 하락, 집안은 19.9%→ 25.4%로 5.5% 하락, 장애인 단체시설은 13.0%→ 20.4%로 7.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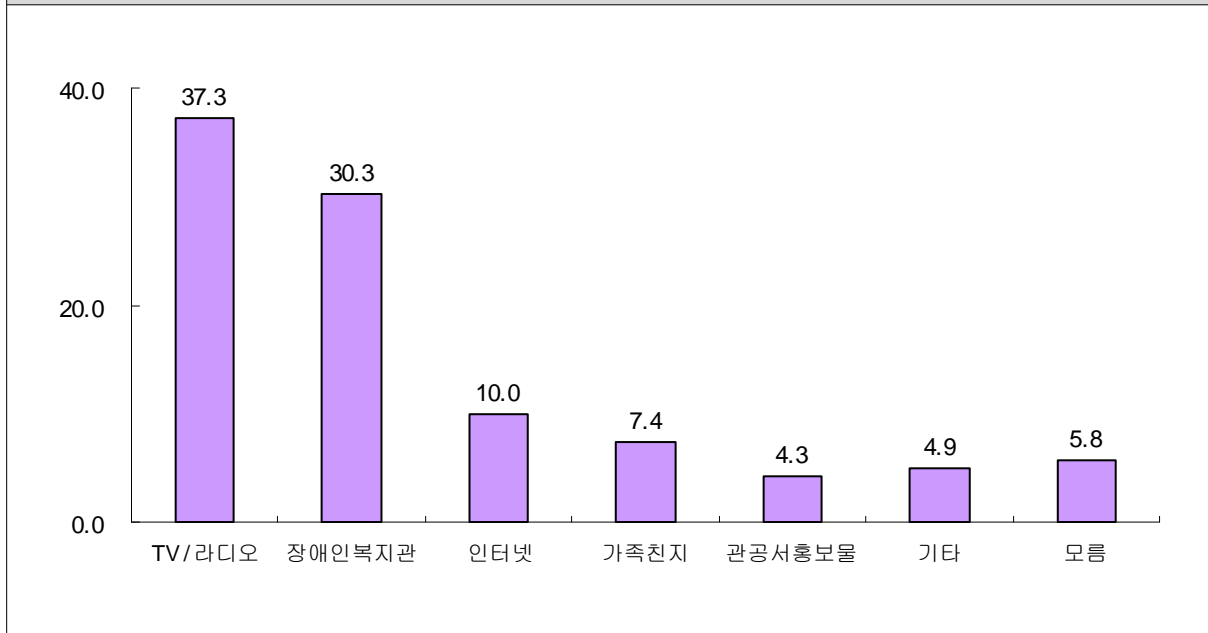


3.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1)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정보의 신뢰성

문)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한 얘기나 뉴스 같은 것은 어떻게 알게 될 때 제일 믿음이 가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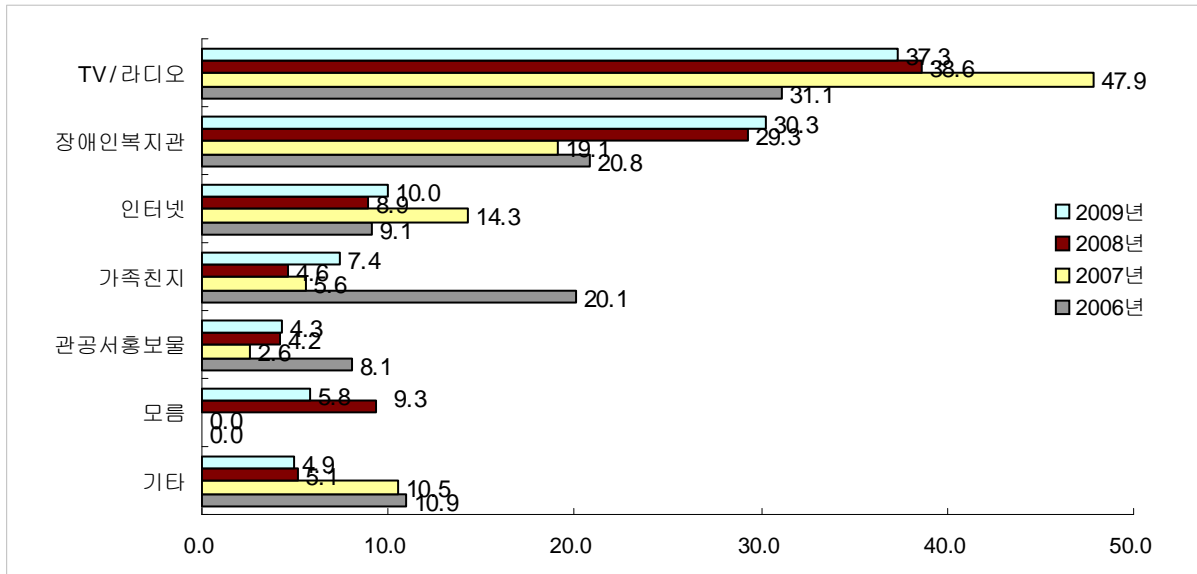


●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한 정보나 뉴스 같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될 때 가장 믿음이 가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TV/라디오(37.3%)를 꼽고 있으며,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30.3%), 인터넷(10.0%), 가족친지(7.4%), 관공서홍보물(4.3%), 기타(4.9%), 모름(5.8%) 등으로 나타났다.

○ TV/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나 뉴스를 믿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이상(43.5%), 거주지역별로 부산(48.1%), 인천(44.3%), 경남(44.2%),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54.7%), 뇌병변장애(48.1%), 관계별로 가족(4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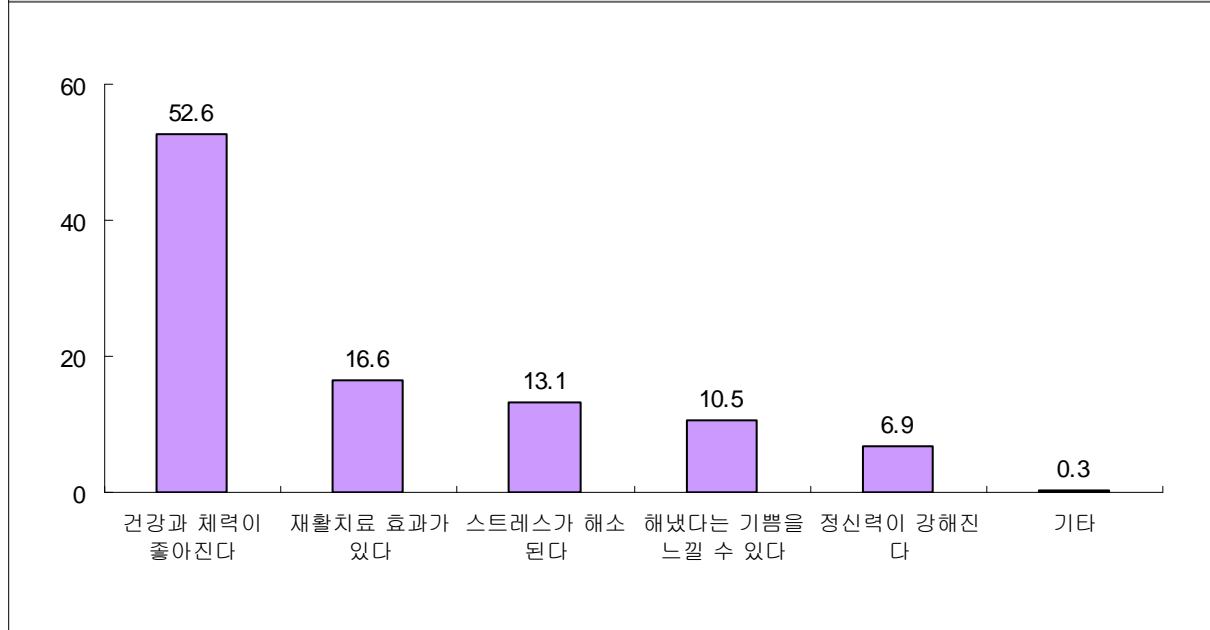
1-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TV/라디오의 신뢰도는 38.6%→ 37.3%로 1.3% 하락, 장애인복지관은 29.3%→ 30.3%로 1.0% 상승, 인터넷은 8.9%→ 10.0%로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운동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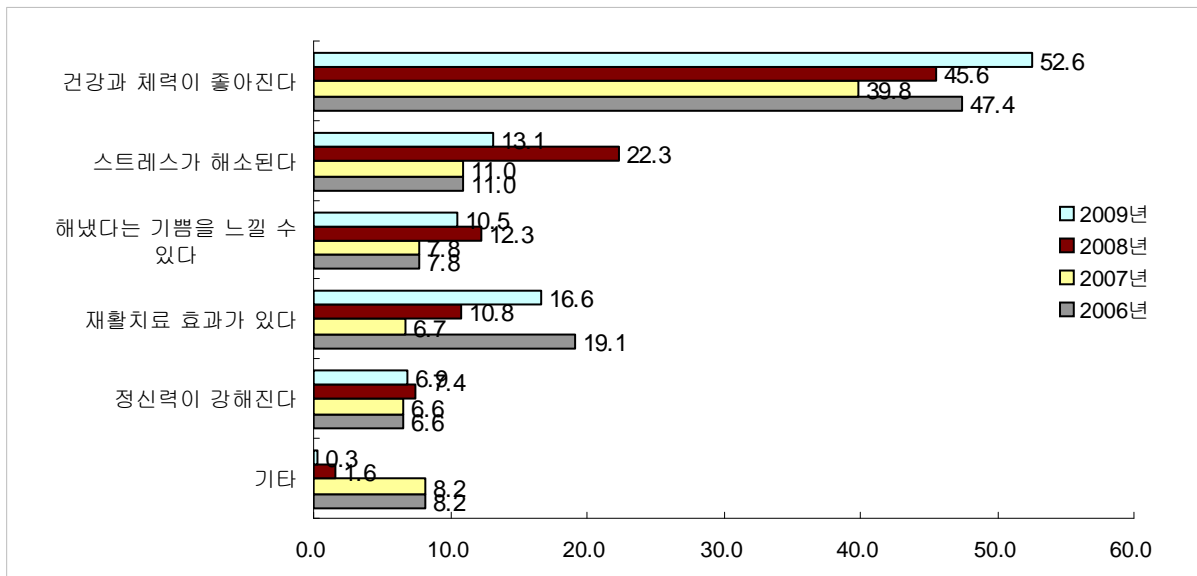
문) 운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얻게 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운동을 통해 장애인이 얻게 되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건강과 체력이 좋아짐(52.6%)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다음은 재활치료 효과가 있음(16.6%), 스트레스 해소(13.1%), 해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음(10.5%), 정신력이 강해짐(6.9%),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운동의 가장 큰 효과로 건강과 체력이 좋아진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이상(60.3%), 거주지역별로 충남(63.8%),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58.7%), 직업별로 자영/서비스(6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으로 재활치료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거주지역별로 제주(26.7%), 부산(2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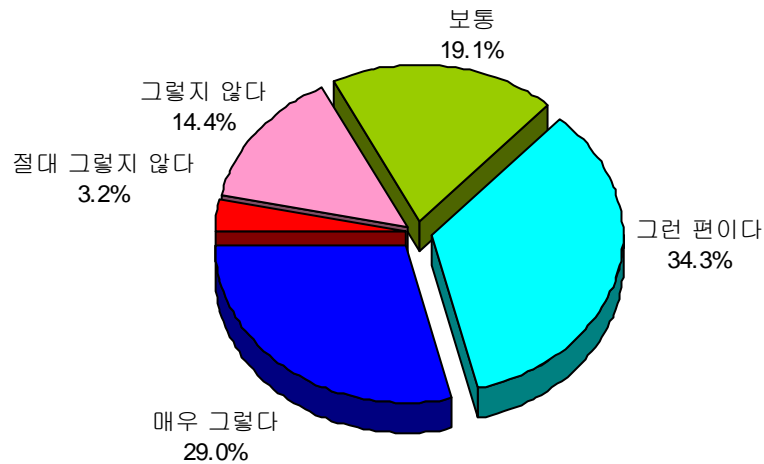
2-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건강과 체력이 좋아진다는 45.6%→52.6%로 7.0% 상승, 재활치료 효과가 있다는 10.8%→16.6%로 5.8% 상승한 반면에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는 22.3%→13.1%로 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문지도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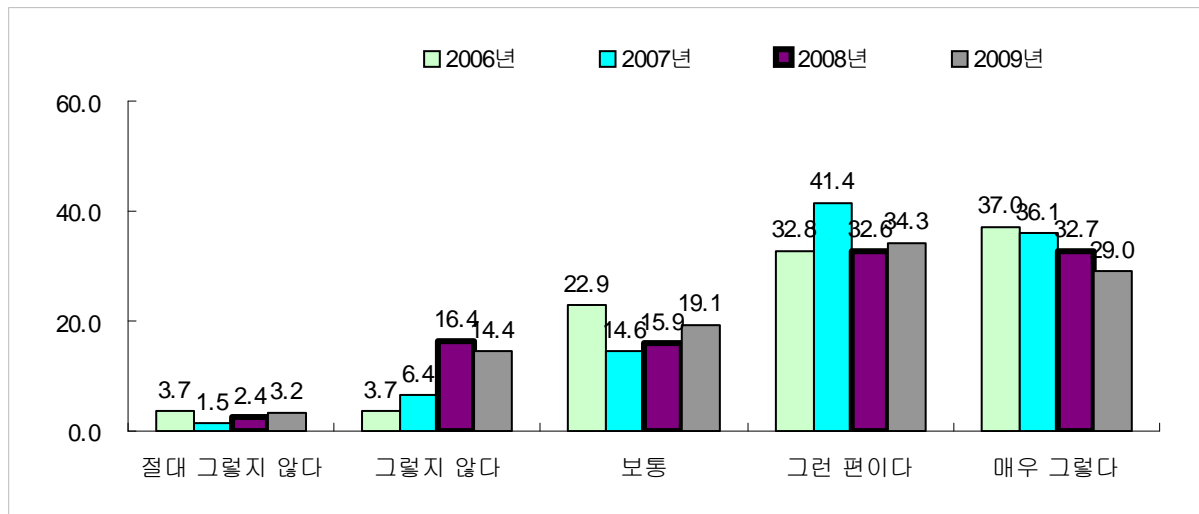
문) 장애인들이 운동할 때 전문지도자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장애인이 운동할 때 전문지도자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63.3%(그런 편이다: 34.3%+ 매우 그렇다: 29.0%)는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17.6%(그렇지 않다: 14.4%+ 절대 그렇지 않다: 3.2%)이며, 보통은 19.1%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장애인이 운동할 때 전문지도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10대(77.6%), 거주지역별로 대전(78.6%), 전남(72.9%), 제주(69.6%), 직업별로 학생(68.5%), 자영/서비스(6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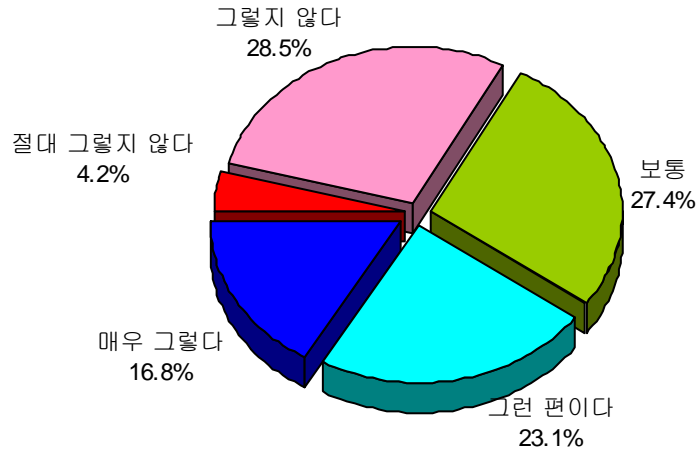
3-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문지도자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응답은 65.3%(그런 편이다: 32.6%+ 매우 그렇다: 32.7%)에서 63.3%(그런 편이다: 34.3%+ 매우 그렇다: 29.0%)로 2.0% 하락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역시 18.8%(절대 그렇지 않다: 2.4%+ 그렇지 않다: 16.4%)에서 17.6%(절대 그렇지 않다: 3.2%+ 그렇지 않다: 14.4%)로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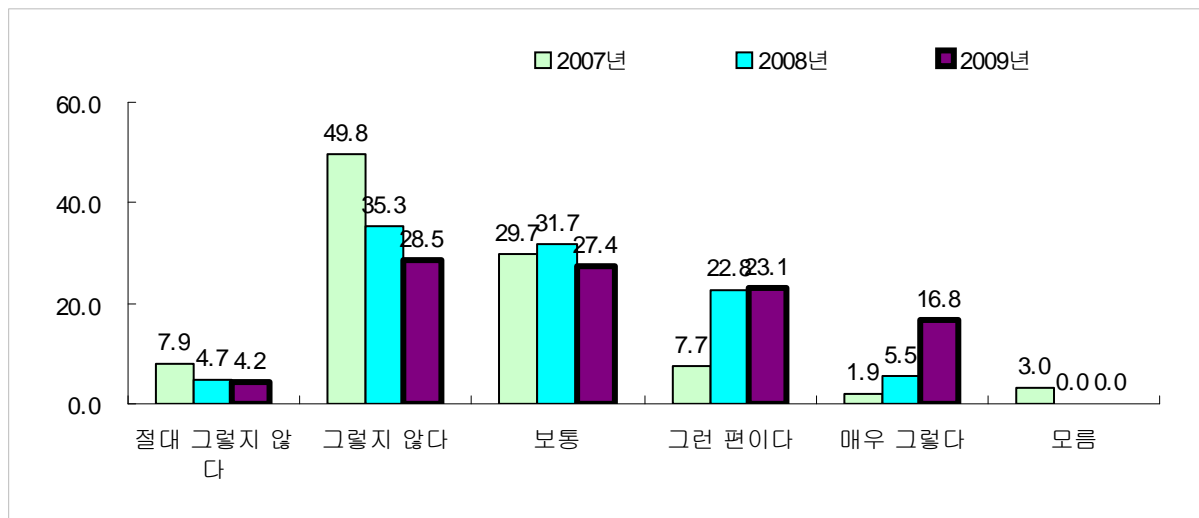
문)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39.9%는(그런 편이다: 23.1%+ 매우 그렇다: 16.8%)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32.7%(절대 그렇지 않다: 4.2%+ 그렇지 않다: 28.5%)이며, 보통은 27.4%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인식은 연령별로 60대이상(52.3%), 거주지역별로 강원(50.0%), 전남(49.2%), 장애유형별로 청각장애(50.4%), 직업별로 건설노동/생산(4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으로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거주지역별로 인천(40.0%), 대전(39.3%), 광주(39.0%),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45.9%), 직업별로 자영/서비스(40.9%), 주부(38.9%), 월평균소득수준별로 400-500만원(45.0%) 및 200-300만원(4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1) 추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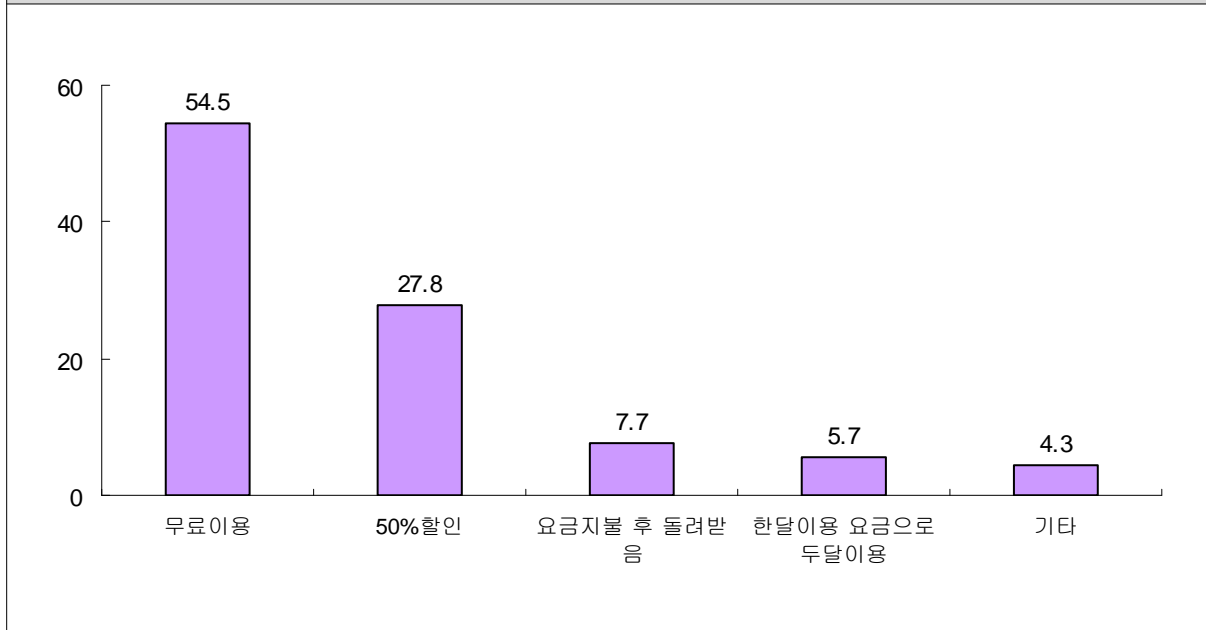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인식은 9.6%(그런 편이다: 7.7%+ 매우 그렇다: 1.9%)에서 39.9%(그런 편이다: 23.1%+ 매우 그렇다: 16.8%)로 30.3%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40.0%(절대 그렇지 않다: 4.7%+ 그렇지 않다: 35.3%)에서 32.7%(절대 그렇지 않다: 4.2%+ 그렇지 않다: 28.5%)로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선호하는 장애인 할인혜택

문) 만약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을 준다면, 가장 좋은 할인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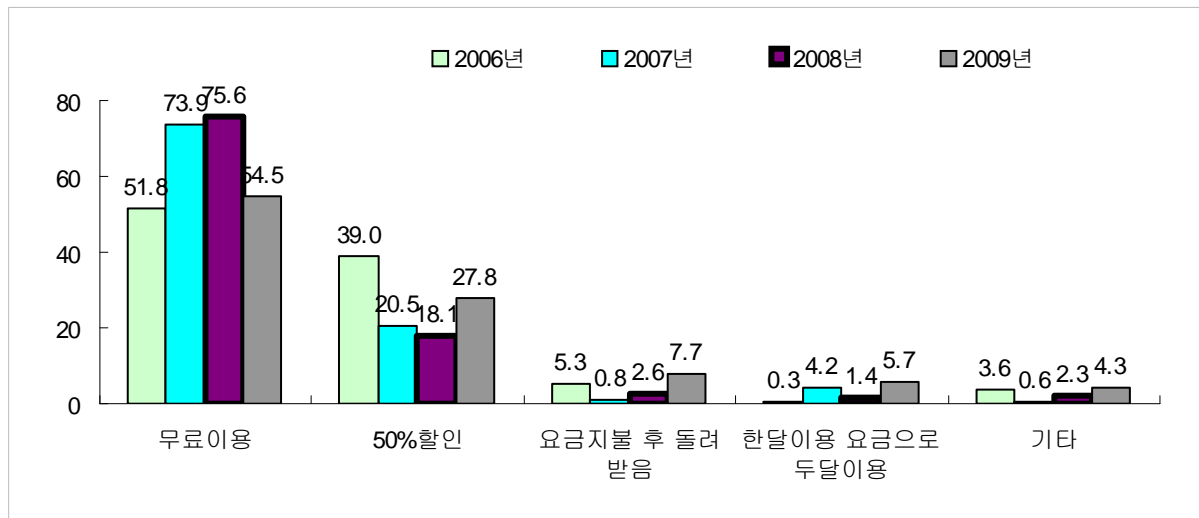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을 준다면 가장 좋은 할인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무료이용(54.5%)을 꼽고 있으며, 다음은 50%할인(27.8%), 요금지불 후 돌려받음(7.7%), 한달이용 요금으로 두달이용(5.7%), 기타(4.3%) 등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할인혜택은 무료이용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5.4%), 거주지역별로 부산(71.4%), 경남(67.4%), 인천(65.7%), 충북(62.5%), 경북(61.6%),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74.4%), 직업별로 주부(61.1%), 관계별로 가족(6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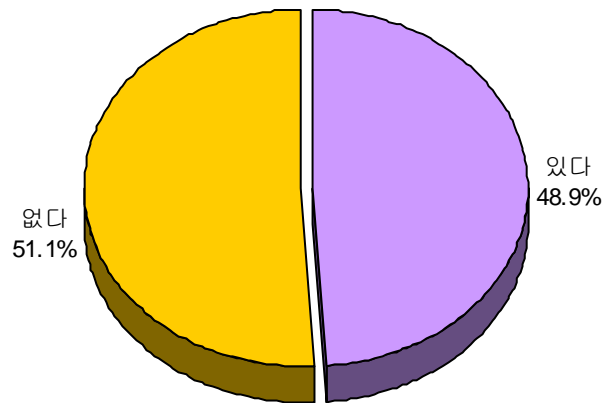
5-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할인은 50%할인 이다는 18.1%→ 27.8%로 9.7%, 요금지불 후 돌려받음은 2.6%→ 7.7%로 5.1%, 한달이용 요금으로 두달이용은 1.4%→ 5.7%로 4.3% 상승한 반면에 무료이용은 75.6%→ 54.5%로 21.1%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장애인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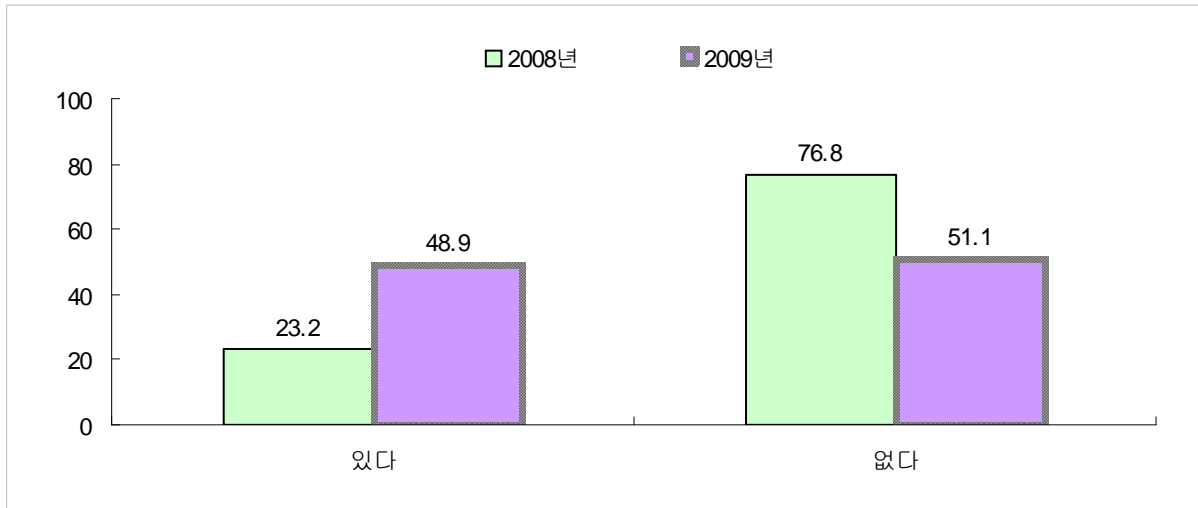
문)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48.9%는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에 51.1%는 지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장애인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대이상(62.1%) 및 10대(58.6%), 거주지역별로 인천(61.4%), 전남(56.8%), 경기(54.3%),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58.9%), 뇌병변장애(56.9%), 직업별로 학생(5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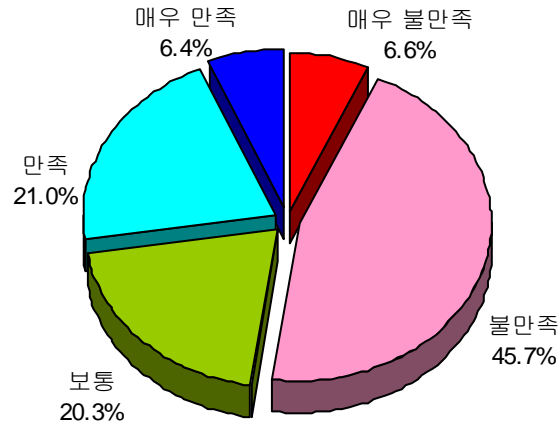
6-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애인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23.2%→ 48.9%로 25.7%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장애인 전문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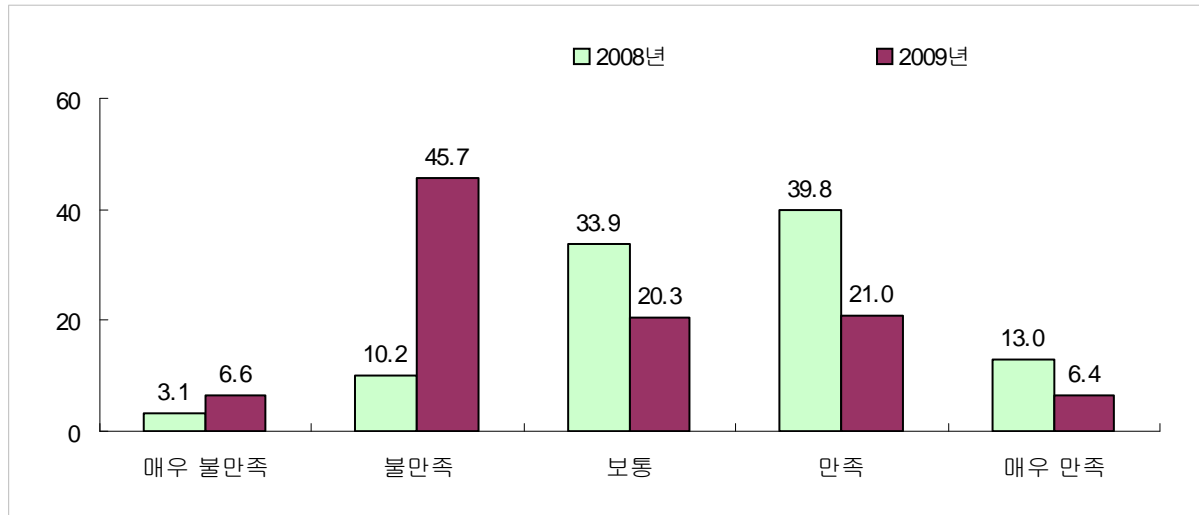
문)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733 / 단위: %)



-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27.4%(만족: 21.0%+ 매우 만족: 6.4%)가 만족하고 있는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52.3%(매우 불만족: 6.6%+ 불만족: 45.7%)이며, 보통은 20.3%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3.8%), 거주지역별로 서울(41.7%), 경북(37.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한편으로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거주지역별로 부산(67.7%), 전북(62.9%), 경기(62.8%), 전남(59.7%),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66.0%), 관계별로 가족(57.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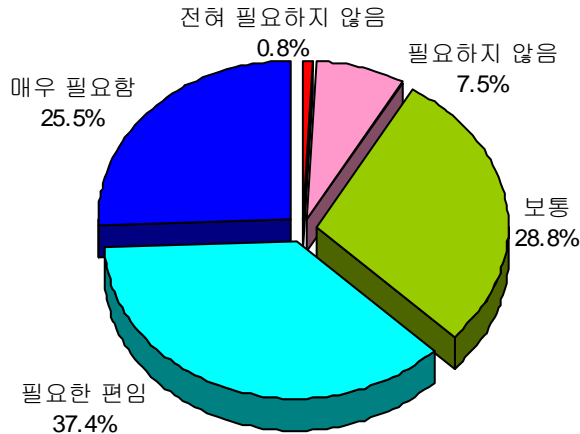
7-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에 만족한다는 52.8%(만족: 39.8%+ 매우 만족: 13.0%)에서 27.4%(만족: 21.0%+ 매우 만족: 6.4%)로 25.4%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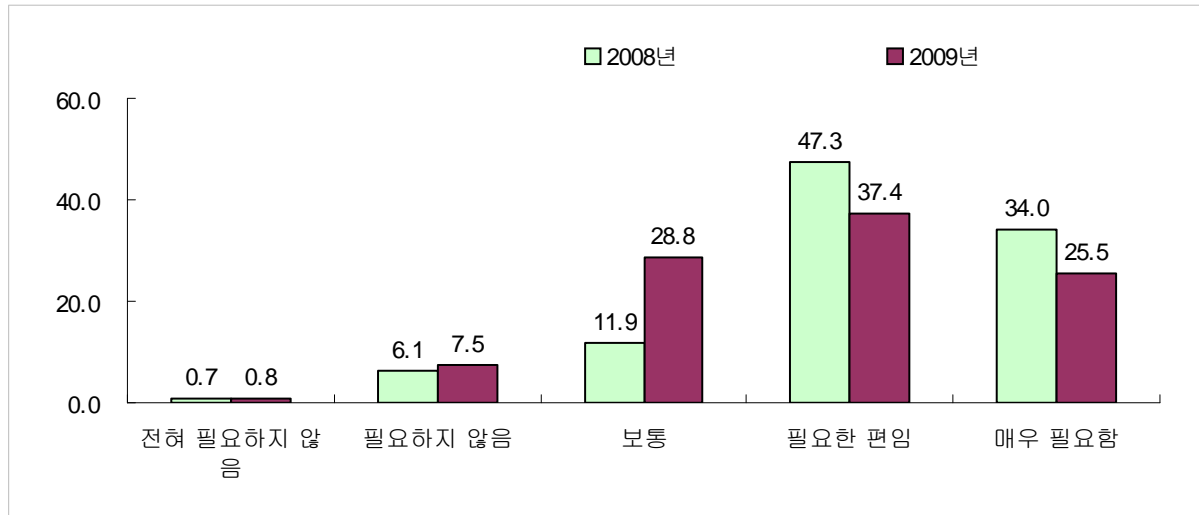
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62.9%(필요한 편이다: 37.4%+ 매우 필요하다: 25.5%)가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는 8.3%(전혀 필요하지 않다: 0.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7.5%)이며, 보통은 28.8%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74.8%), 거주지역별로 경북(80.4%), 광주(73.2%), 제주(70.0%), 서울(69.3%), 전북(68.9%),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79.7%), 청각장애(76.3%), 월평균소득수준별로 400-500만원(7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81.3%(필요한 편이다: 47.3%+ 매우 필요하다: 34.0%)에서 62.9%(필요한 편이다: 37.4%+ 매우 필요하다: 25.5%)로 18.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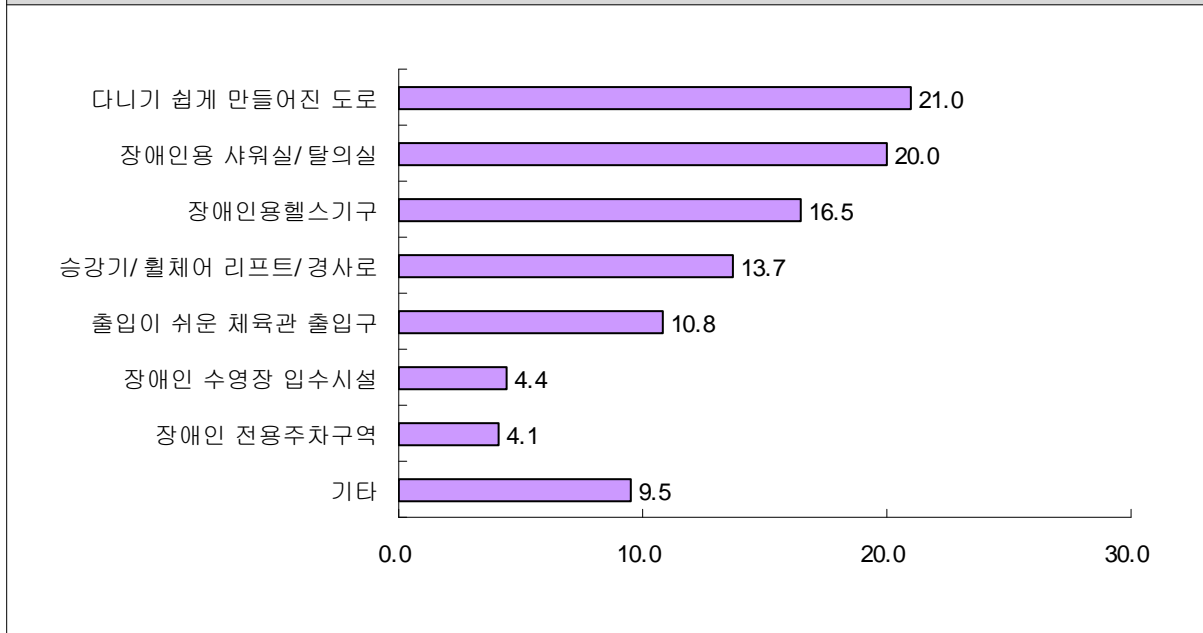


4.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

1)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문) 운동을 하게 된다면(하는 경우)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은 무엇입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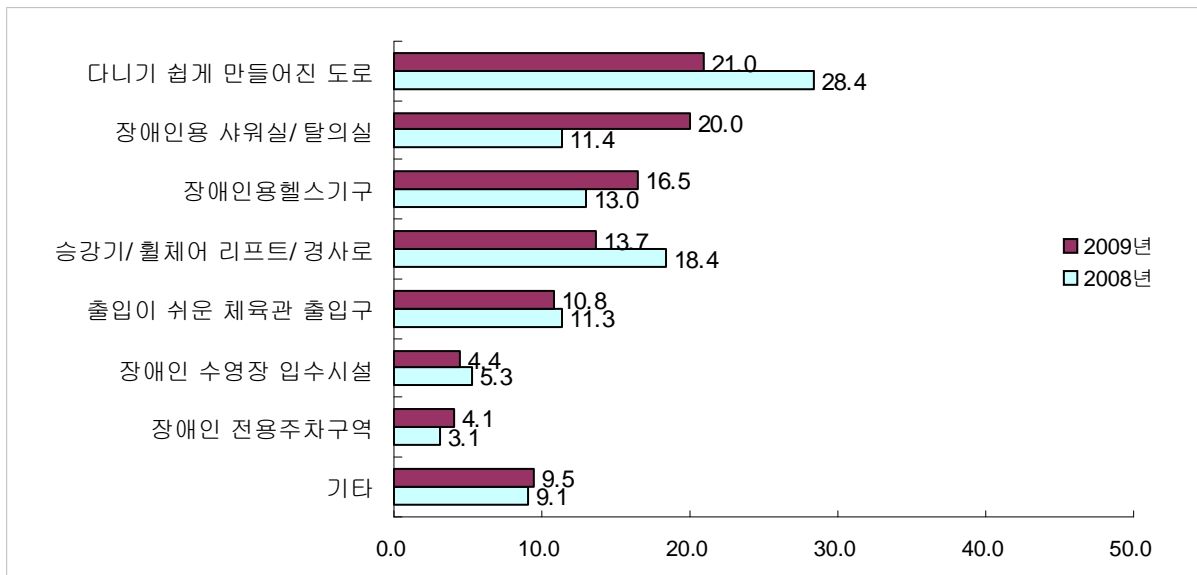


● 운동을 하게 된다면(하는 경우)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주로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도로(21.0%)와 장애인용 샤워실/탈의실(20.0%)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다음은 장애인용 헬스기구(16.5%), 승강기/휠체어 리프트/경사로(13.7%), 출입이 쉬운 체육관 출입구(10.8%), 장애인 수영장 입수시설(4.4%),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4.1%), 기타(9.5%) 등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로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도로는 성별로 여성(27.1%), 거주지역별로 부산(35.1%),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41.3%), 장애인용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는 거주지역별로 경기(30.6%), 장애인용 헬스기구는 연령별로 10대(24.1%), 장애유형별로 뇌병변장애(2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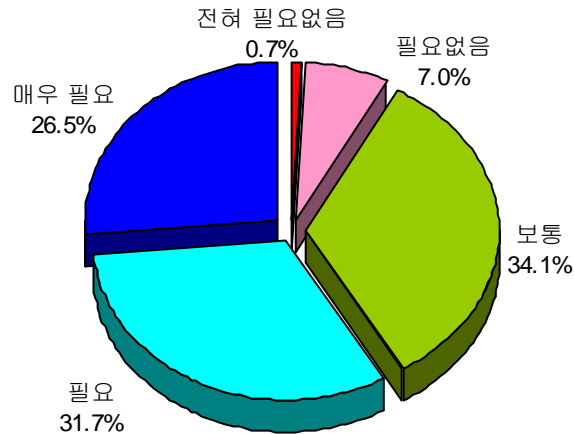
1-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체육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로 장애인용 샤워실/탈의실은 11.4%→ 20.0%로 8.6%, 장애인용 헬스기구는 13.0%→ 16.5%로 3.5% 상승한 반면에 다니기 쉽게 만들어진 도로는 28.4%→ 21.0%로 7.4%, 승강기/휠체어 리프트 경사로는 18.4%→ 13.7%로 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결성 및 조직 확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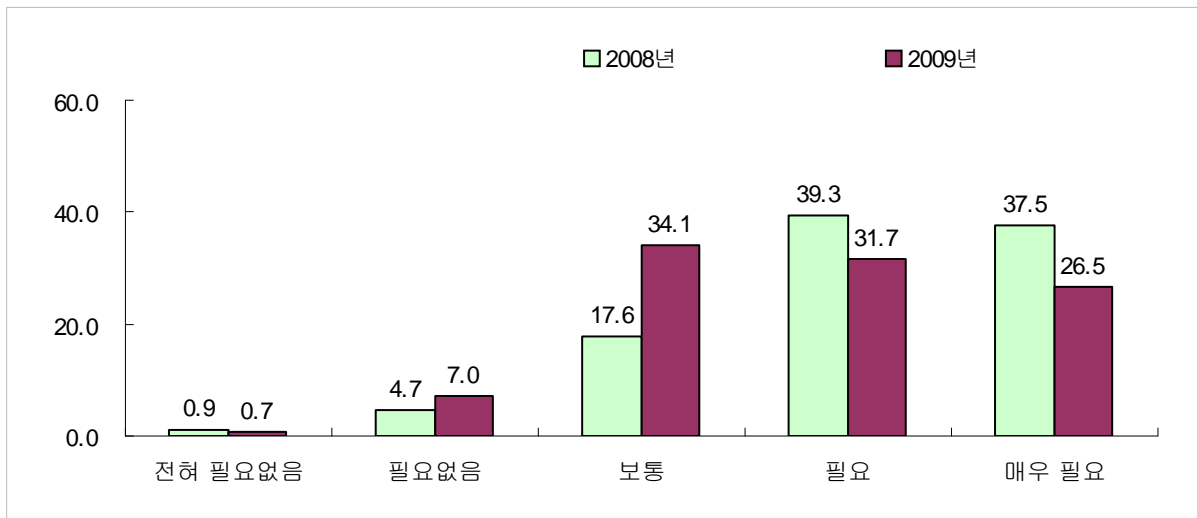
문)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결성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결성과 조직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58.2%(필요한 편이다: 31.7%+매우 필요하다: 26.5%)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는 7.7%(전혀 필요하지 않다: 0.7%+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7.0%)이며, 보통은 34.1%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장애인 스포츠 클럽의 신규결성과 조직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7.3%), 거주지역별로 경남(70.9%), 강원(69.1%), 서울(66.7%), 충북(64.6%), 경북(64.3%), 장애유형별로 청각장애(76.3%), 직업별로 자영/서비스(64.6%), 월평균소득수준별로 400-500만원(7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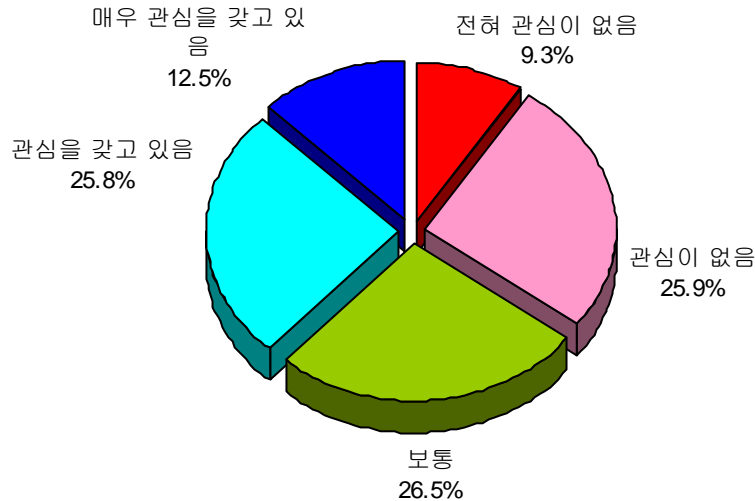
2-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애인 스포츠 클럽의 신규결성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76.8%(필요하다: 39.3%+ 매우 필요하다: 37.5%)에서 58.2% (필요한 편이다: 31.7%+ 매우 필요하다: 26.5%)로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치단체의 관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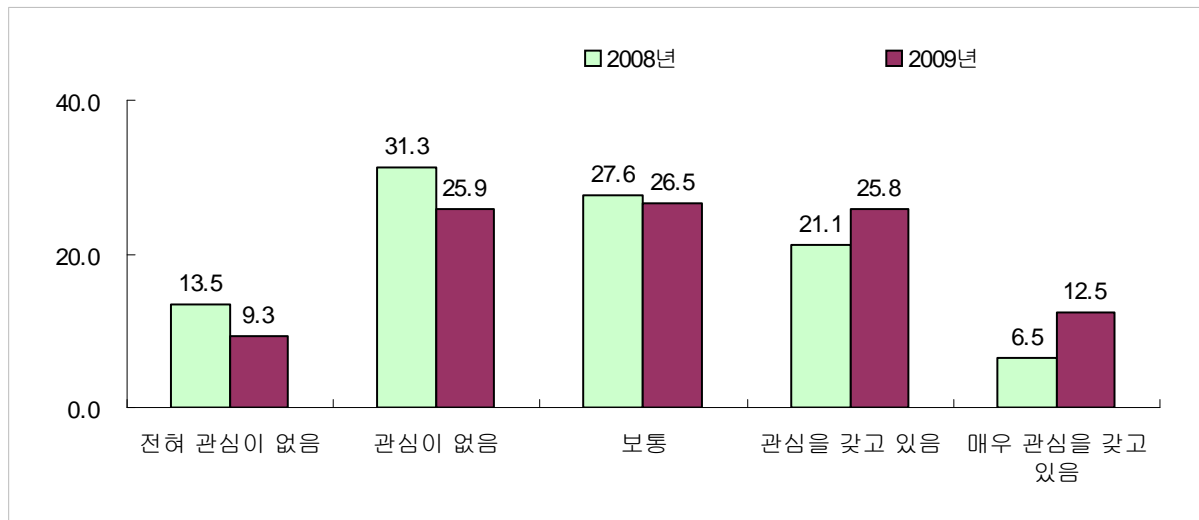
문) 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38.3%(관심을 갖고 있다: 25.8%+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12.5%)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전혀 관심이 없다: 9.3%+ 관심이 없다: 25.9%) 35.2%이며, 보통은 26.5%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5.2%) 및 60대이상(48.1%), 거주지역별로 전남(47.5%), 전북(44.6%), 충남(43.8%),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43.6%), 뇌병변장애(43.1%), 직업별로 주부(4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1) 추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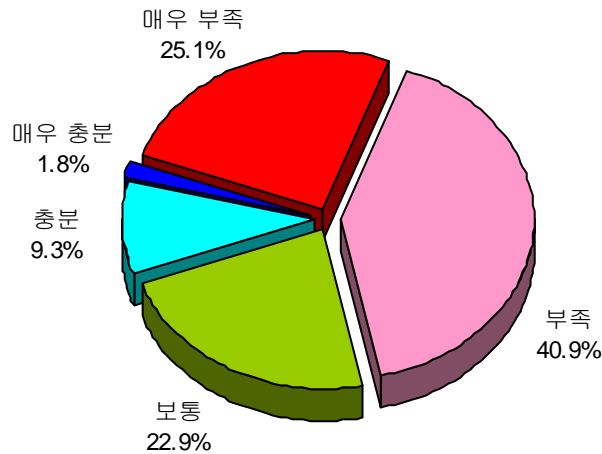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27.6%(관심을 갖고 있다: 21.1%+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6.5%)에서 38.3%(관심을 갖고 있다: 25.8%+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12.5%)로 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업의 후원에 대한 인식

문) 장애인 체육시설 건설 및 대회 개최 등에 기업의 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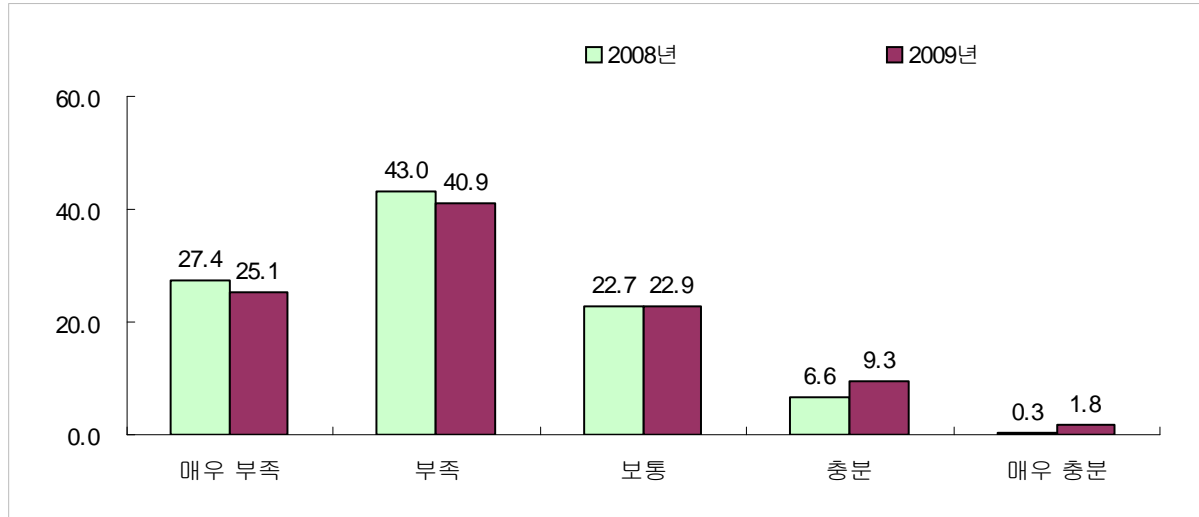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 N=1,500 / 단위: %)



- 장애인 체육시설 건설 및 대회 등에 기업의 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66.0%(매우 부족하다: 25.1%+ 부족하다: 40.9%)가 기업의 후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충분하다는(충분하다: 9.3%+ 매우 충분하다: 1.8%) 11.1%이며, 보통은 22.9%로 나타났다.
- 응답자 특성별로 장애인 체육시설 건설 및 대회 개최 등에서 기업의 후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연령별로 30대(74.6%), 거주지역별로 경북(77.7%), 광주(75.6%), 대전(75.0%), 직업별로 자영/서비스(79.5%), 월평균소득수준별로 200-300만원(77.3%), 400-500만원(7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1) 추이분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애인 체육시설 건설 및 대회 개최 등에 있어서 기업의 후원이 부족하다는 70.4%(매우 부족하다: 27.4%+ 부족하다: 43.0%)에서 66.0%(매우 부족하다: 25.1%+ 부족하다: 40.9%)로 5.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정책적 제언

미래/를/위/한/컨/설/팅 &
조사분석의 최강의 동반자



1) 장애인 생활체육 현황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생활체육 대상자의 61.8%에서 69.8%로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의 증가율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이래 생활체육 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 주도로 생활체육 참가율을 올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운동목적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재활치료는 85.1%→ 82.2%로 2.9% 하락, 건강증진은 7.0%→ 7.8%로 0.8% 상승, 여가활동은 5.1%→ 7.4%로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수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장애인이 운동하는 이유가 재활치료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운동횟수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일주일에 2-3번이 32.7%→ 35.0%로 2.3% 상승, 거의매일이 31.8%→ 33.2%로 1.4% 상승, 일주일에 4-5번이 17.3%→ 18.0%로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동횟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체육회의 7330 프로젝트와 같은 홍보를 통해 장애인들의 운동참가 횟수를 더욱 높힐 필요성이 있다.

4) 운동시간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시간이상은 15.1%→ 28.2%로 13.1% 급상승, 1시간 30분-2시간은 13.5%→ 16.5%로 3.0% 상승, 30-60분은 29.2%→ 21.7%로 7.5% 하락, 30분이하는 19.7%→ 11.9%로 7.8% 하락, 1시간-1시간 30분은 22.5%→ 21.7%로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시간 이상 운동참가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장애인 체육의 매니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들 매니아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운동장소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근처야외 등산로나 공원에서 주로 운동을 한다는 27.8%→ 29.1%로 1.3% 상업스포츠시설은 7.9%→ 9.7%로 1.8%,

- 상승, 장애인단체시설은 7.0%→ 9.2%로 2.2% 상승, 집안은 20.9%→ 14.5%로 6.4% 하락, 복지관체육시설은 22.8%→ 20.5%로 2.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집안에서 운동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아직도 미흡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된다. 접근성이 용이한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30.1%(만족: 22.6%+ 매우 만족: 7.5%)→ 37.9%(만족: 27.7%+ 매우 만족: 10.2%)로 7.8% 상승한 반면에 불만족한다는 30.4%(매우 불만: 6.4%+ 약간 불만: 24.0%)→ 26.4%(매우 불만: 5.9%+ 약간 불만: 20.5%)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점점 더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최근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투자가 결실을 보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운동에 대한 의지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운동할 의향은 54.1%(되도록 할 것: 39.7%+ 반드시 할 것: 14.4%)→ 50.1%(되도록 할 것: 35.8%+ 반드시 할 것: 14.3%)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 희망하는 운동종목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재활치료 관련 운동은 36.1%→20.1%로 16.0% 급감소한 반면에 걷기는 19.8%→ 21.0%로 1.2% 상승, 수영은 11.3%→ 15.2%로 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희망운동종목의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운동종목의 선택으로 판단된다.

9) 전문지도자의 필요성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문지도자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응답은 65.3%(그런 편이다: 32.6%+ 매우 그렇다: 32.7%)에서 63.3%(그런 편이다: 34.3%+ 매우 그렇다: 29.0%)로 2.0% 하락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역시 18.8%(절대 그렇지 않다: 2.4%+ 그렇지 않다: 16.4%)에서 17.6%(절대 그렇지 않다: 3.2%+ 그렇지 않다: 14.4%)로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적의미는 무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속적으로 전문지도자가 도와줘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장애인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애인 전문지도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23.2%→ 48.9%로 25.7%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의 장애인지도자 배출이 많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11) 장애인 전문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지도에 만족한다는 52.8%(만족: 39.8%+ 매우 만족: 13.0%)에서 27.4%(만족: 21.0%+ 매우 만족: 6.4%)로 25.4%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각 대학 특수체육관련학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전문지도자의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자치단체의 관심에 대한 인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치단체가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27.6%(관심을 갖고 있다: 21.1%+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6.5%)에서 38.3%(관심을 갖고 있다: 25.8%+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 12.5%)로 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각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기업의 후원에 대한 인식

-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장애인 체육시설 건설 및 대회 개최 등에 있어서 기업의 후원이 부족하다는 70.4%(매우 부족하다: 27.4%+ 부족하다: 43.0%)에서 66.0%(매우 부족하다: 25.1%+ 부족하다: 40.9%)로 5.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전히 장애인 체육에 대한 각 기업의 후원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각 기업에 적극적인 스폰서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전공자와 연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